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탕자의 비유

When I was younger, my older brother started getting chest pains.

So, he went to the doctor, and said “something doesn’t seem right. It feels like my heart beats IRREGULARLY” The doctor got him to do a whole bunch of tests: ECG, Ultra-sound, A CT-scan. He had “Myocardial perfusion” scan... Don’t know what that one does... but my brother just told me it was painful! All the results got sent to the specialist. And the specialist said to him “You’re fine. You’re fine. But you do have an irregular heartbeat.”

So, on the scan of my brothers’ heart, might just look a little different to yours mine. My brother has an irregular heartbeat. That's what the scan shows. Luke 15 I think is a bit like a heart scan.... for God! You get to see something of God's heartbeat, and the WAY his heart beats. Let me suggest to you this morning that God actually has an irregular heartbeat. His heart beats in a way that maybe we don't quite inspect. Certainly, in a way that Jesus is first hearers, as he’s saying this parable, they wouldn't expect. **His heart beats for the lost. For people who've run away.** And Jesus wants us, people who would say we've been found, people who are following Him, disciples of Him, He wants us to share that irregular heartbeat that God has. It's a distinctive of being His disciple.

Why is Jesus talking about this? A bit of context helps.

If you look back in your Bibles to the start of Luke 15. It says this:

1. *Now the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all gathering around to hear him. 2. But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muttered, "This man welcom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제가 어렸을 적에, 제 형이 가슴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보러 갔을 때, 의사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장박동이 불규칙 하네요” 라고 말하며 여러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ECG -초음파 - CT 스캔, - “심근관류스캔”이라는 검사도 했는데, 이 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 형은 꽤 아픈 검사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검사결과는 심장 전문의 에게 보내졌고, 심장 전문의가 말하기를 “당신은 괜찮습니다, 그냥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제 형은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스캔에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누가복음 15 장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스캔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한구석을 보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규칙적인(평범하지 않은) 심장박동(마음)을 가지신 분이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의 마음은 어쩌면 우리가 점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작용하시고,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듣던 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작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그로부터 도망가는 자들을 위해 움직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잃었다가 발견되었고, 그를 따르며, 그의 제자 된 자들이라 하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된 자들의 특징이기도 한 것 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5 장을 보면 말씀하기를,

1. *많은 세무원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2.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음식까지 먹는다.' 하고 투덜댔다. [현대인의 성경]*

The Pharisees, the "Religious guys", They've got a problem with Jesus' social manners. He's welcoming tax collectors and sinners. Sinners are people in the minds of the Pharisees, who don't measure up to the Law of Moses (as they interpret it) And Tax collectors, the were seen as traitors, who'd sold out to the Romans. And the implicit question is: "Well, why does Jesus do this?" "If he's supposed to be some holy-guy, a rabbi, why is he hanging out with these people?" "Why is he a friend of sinners?" And they're asking that question, I suspect, because they think that God's heart beats in a way that's kind of, I guess you could say, regular. guess you could say, regular. Beats for good people! People who have it all together! People who have it sorted out with God...His heart beats for them. Jesus, I think, is showing them otherwise. He's showing them that God's heart actually beats for the lost. It beats for sinners.

So let's look at the story. We'll look at the younger son first. The younger son gets really lost. Look at verse 11, "There was a man who had two sons. 12. The younger one said to his father, 'Father, give me my share of the estate.' So he divided his property between them.

Now when the younger son says "Give me my share ..." He's literally saying something like "Give me what's left of your life. Give me what I'm OWED when you die." In other words he's saying "I'd prefer you were dead." ... "I'd prefer you were not around. The younger son wants the father's things, but he doesn't want the father. That's a great way actually to think about sin. We want the goodies. We want all the good things in life, all the things that God's made, but we don't actually want Him. That's sin.

Now Jesus' hearers, at this point, I think they'd be something like "This is terrible!" There would be a lot of tut-tutting and head shaking! "The father should run his son out of his house on a rail!" But look what he does. Without any fuss, it would seem, he simply divides the inheritance. Again, it's irregular kind of stuff. For this kind of insolence the younger son should be shunned! But he divided the inheritance ...

And remember, we're in a day with no banks, there's no cash lying around, no stocks and bonds,

He has to liquidate! Doesn't he? He has to sell up. I don't want to press the details too hard as to how this all works because the father still seems to have somewhere to live and all that sort of stuff. But the point is: this younger son is literally tearing up the life of his family, making a real mess. But it gets worse. Verse 13. He heads off to a faraway country and he lives this wicked and wasteful life (with wine, women and song). And then comes a famine. He hires himself out (probably to a Gentile) to look after pigs ! ... Audible gasps in the audience right now! "Ahhhh how could he do that!?"

당시의 종교심이 투철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무원과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태도에 문제 삼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죄인들이라 함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고, 또한 세무원이라 함은 로마제국에 들러붙은 반역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는 암묵적인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지?" "그는 거룩한 랍비인데, 왜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지?" "왜 그가 죄인들의 친구인 것이지?" 라는 질문을 물었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반적인/정상적인 마음'은 선하며, 모든 것을 가졌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향해 있을 것이라 생각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방황하는, 죄인들에게 향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보죠. 먼저 본문의 작은 아들을 보면, 정말로 방황하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11 절부터 말씀하기를 : "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12.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작은 아들이 하는 말이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그야말로, "당신 인생의 남은 것을 주십시오, 당신이 죽었을 때 나에게 돌아올 것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는 즉, "당신이 죽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원하지만, 아버지는 원치 않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좋은 것을 바라면서 정작 하나님을 원치 않아 합니다.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쫓쫓거리며 '이것은 끔찍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욕을 하며 집에서 내쫓아야 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아버지는 조용히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다시금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무례한 요구를 거부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의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당시에는, 은행이 없던 시절입니다. 현찰이나 주식 보증과 같은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기에, 이는 그가 청산해야 했으며 팔아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 재산을 정리 했는지 더이상 디테일 하게 파고들지 않겠지만, 여하튼 여기서의 요점은, 이 작은 아들이 그의 가족의 삶을 파괴하며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황은 더욱 악화 됩니다. 13 절에서 그는 먼 나라로 떠나고,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술과 여자와 유흥), 그리고는 큰 흉년이 그 나라에 들게 됩니다. 그는 일을 찾아 (아마도 이방인에게)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라며 사람들의 탄식이 흘러 나옵니다.

There'd be some people there who would think you can't sink any lower than this, It'd be preferable to be DEAD, than to be feeding pigs. And some people would be sitting there thinking "That serves him right. That's what you get when you treat your father that way." This guy can't sink any lower.

But he comes to his senses, doesn't he. In verse 17, you start to hear his inner thoughts. He comes to his senses. You see here repentance. You start to see repentance at work. "It wasn't that bad with Dad, at all."

And you see he has a PLAN, doesn't he? He has a plan in verse 18.

18. I will set out and go back to my father and say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against you. 19.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make me like one of your hired men.' 20. So he got up and went to his father. "But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he ran to his son, threw his arms around him and kissed him.

And so he gets up and goes. There're some commendable things here in terms of his repentance: He recognizes rightly that he's got no rights. He's got nothing. He's not even worthy of being called 'son'. And notice he says he's going to say to his father "Take me back as one of your hired men.

Could it be that he's thinking "Okay, I owe my dad big time, I'm going to try and pay him off. I'll WORK my way back in."

That's the regular way things work isn't it? When we do something wrong.

But see the irregular way now that the Father works. You see this over-the-top grace.

The second half of verse 20 where it says: "But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he ran to his son, threw his arms around him and kissed him.

He breaks all the protocols for a man of his age, in that culture! They just didn't run, it was below their dignity. He would be lifting his robe up, running along, he jumps on his son, who's covered in pig filth, and kisses him. It's EMBARRASSING. I think that's what you're supposed to feel! You just don't do that kind of stuff in public! !

이를 보며 사람들은 "여기서 더이상 이 사람이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돼지를 먹이 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 아버지께 한 무례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작은 아들은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7 절에서 부터는 그의 마음속 생각을 보게 되고,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어" 라며 그가 계획을 세우고 이를 18 절에서 보게 됩니다. "18. 그렇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 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19.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20. 그리고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는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음을 인식합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뭐라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말하길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 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께 큰 빚을 졌기에,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제자리로 돌릴 방법을 궁색해 볼 거야"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버지의 정상적이지 않은, 지나쳐 보이는 은혜를 봅니다. 20 절 후반부에서 말씀하기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는 당시 문화 가운데, 그 나이또래 어른이 하지않는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그는 그 아들에게 뛰어 갈고, 이는 품위를 잃어버린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뛰어 가면서 그의 옷자락을 울렸을 것이며, 돼지 오물 범벅이 가 된 어린 아들에게 뛰어들어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보통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창피한 행동일 것이고, 보통은 대중 앞에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And remember, the son had that prepared speech that he was going to read out as well. But before he can say anything about WORKING his way back into the family, the father interrupts him. And this is where it gets really over the top, really irregular. 22. "But 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s, 'Quick! Bring the best robe and put it on him. Put a ring on his finger and sandals on his feet. 23. Bring the fattened calf and kill it. Let's have a feast and celebrate. 24. For this son of mine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I think there would be people sitting there going "This father's lost a screw. You just don't do this!" But what point is Jesus teaching? He's saying you can't work your way back in. It doesn't matter what you've done, It doesn't matter what you've become. It doesn't matter what depths you've sunk to. You just have to turn back. And you're back in the family.

Apply: Now I suspect that today we are representative of the average bunch of sinners, who've been brought together. And I suspect there are some stories here that are sad and grubby, shameful . (if you're anything like me.) Things that you've done that you think "God just can't possibly forgive me!" Jesus says there's nothing unforgivable. It's forgivable.

He wants us to see that God's grace, really is actually extravagant, and deep, and truly amazing. Notice the father doesn't just do the bare minimum with all of this. It's not just like the son comes back and he says to him "Okay, well be good now. I'll take you back. Yeah, I'll take you back as a slave. You can work." He says "Look! Let's bring robes, rings, signet rings, sandals, let's kill the fattened calf!"

Illustrate: If you're old like me, you probably grew up with this story being called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the word "prodigal" just means wasteful or extravagant.)

But actually, this story should be called the Parable of the Prodigal Father. He's the one who's wasteful.

He's the one who's extravagant. With the love he shows. And actually there's two sons in the story, isn't there. So, let's think about that older brother. Because, remember, Jesus is telling this story to an audience of tax collectors / sinners, Pharisees. Younger brothers types . Older brothers types . who the Pharisees (religious guys) have some kind of resonance with!

And we see from verse 25 onwards. **The older son - he's just as lost as the younger son.**

25 "Meanwhile, the older son was in the field. When he came near the house, he heard music and dancing. 26. So he called one of the servants and asked him what was going on.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작은 아들은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이 준비한 말을 하려는 찰나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말을 합니다.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아버지는 나사 하나가 빠진 걸 거야, 그런 행동은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점은 무엇 이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려는 사실은, 당신이 지난날에 무엇을 했던 간에, 당신이 지난날에 무엇이 되었던, 그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졌을 지라도, 당신은 돌아와야 하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온다는 사실 입니다.

적용 점: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일반적인 무리의 죄인들을 대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같다면) 지난날 우리의 삶에는 슬프고, 더럽고, 창피한 이야기들이 다들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서는 도무지 용서 하지 못하실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 받지 못할 것은 없다는 사실 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사치스러운 정도로 넘치나며, 깊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그는 아들을 최소한의 것으로 반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인즉 "그래, 앞으로는 잘 행동하고, 너를 다시 나의 종으로는 받아들일 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제일 좋은 옷을 내고, 반지를 가져오고,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즐기자!" 라고 말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화: 여러분이 저와 같이 나이가 드셨다면,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자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탕자'라는 단어는 '낭비' 또는 '사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작 그의 아버지가 탕자라고 불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있어서는 낭비하며, 사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두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은 이 이야기의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과 같은, 세무원과 바리새인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 절에서, 큰 아들은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방황하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25. 막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 한 중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The servant fills him in....I don't know if I'm reading too much into it... but notice he's "out in the field."
There's a bit of distance already. He doesn't even go in to find out what's going on! He has to send in a servant! I think I'd be wanting to look! To see for myself! But no, no. And when he is told what's going on, he gets angry! Verse 28: He became angry. He refuses to go in and his father comes out and pleads with him. . And you see right here, that he might be standing just outside the door of his father's house. but he's as far away as his younger brother was while he was wallowing with the pigs. He's just so distant.

There's a problem with his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And you see here that he's just as lost. Look at verse 29. He's talking to his father. He says "Look." (It's kind of like "Look you!") 29. But he answered his father, 'Look! All these years I've been slaving for you and never disobeyed your orders. Yet you never gave me even a young goat so I could celebrate with my friends. 30. But when this son of yours who has squandered your property with prostitutes comes home, you kill the fattened calf for him!'

The problem is that he sees his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in terms of rules. He's relating to him through being good -> dotting I's and crossing T's. It sounds like salvation by works. "I've been so good, he's been so bad. You go and kill the fattened calf for him. Where's the justice in that?" Now do you sort of feel for him a little bit?

Illustrate: I heard the story of a preacher who retold this story, but he recast the story, to make a point.
He talked about how the younger son dies in the faraway country, and it's the OLDER son who gets the robe and the ring, and the fattened calf is killed in honor of his obedience and sacrifice and loyalty.

A lady in the back of the congregation screamed out "THAT'S THE WAY IT SHOULD'VE BEEN WRITTEN!" That's regular. That's the way it normally works. And there's a warning here, that the older son is just as lost. - He's a self-righteous guy. He's so focused on his rights, his moral goodness. He thinks that will please his father. That's the way to relate.

여기서 제가 너무 과대 해석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구절에서 말하길 그는 “밭에 있었고”, 라고 말함으로 이미 동생과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직접 들어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기 보다는, 한 중을 불러 그 중을 대신 보냅니다. 그는 그가 직접 보기를 원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올 때, 아버지께 탄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단순히 아버지 집 문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 일 수 있으나, 하지만, 이는 그의 동생이 진흙탕에서 돼지들과 똥굴고 있을 때, 그의 동생으로 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관계에도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29 절에서 그의 아버지께 말할 때, (한글 번역본에는 번역이 안되 있으나, 영어 번역본에는 “Look” (이 보십시오!) 라는 말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29. (이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 아들은 관계를 ‘법칙’과 같은 것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선을 앞세워 관계를 형성하고, 모든 것을 아무런 잘못없이 행하려 합니다. 이는 구원을 자신의 공로로 얻으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해왔고, 내 동생은 못된 짓을 해왔어, 그런데 이 못된 동생을 위해 살진 소를 잡아? 이게 공정 하거나 한 거야?” 아마 여러분도 이런 형과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화: 예전에 한 설교자가, 이 이야기의 요점을 전달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살짝 고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쳐진 이야기는, 작은 아들은 머나먼 나라에서 돌아오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첫째 아들의 순종과, 회생, 그리고 충성심에 대한 대가로 좋은 옷과 반지를 얻고 살진 소를 잡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고쳐진 이야기를 듣고, 교회 뒤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이 외치기를 “맞아! 원래 이야기는 이렇게 써졌어야해!”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이 작은 아들만큼 방황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 그는 자기 의로 충만했으며, 그의 옳음과, 도덕적 선함에 집착하였고, 이로 자신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의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려는 방식 였던 것입니다.

Jesus is saying "No, that's not the way to relate to God." He's having a dig at the Pharisees. The older brother, the legalistic types who dot I's, cross T's, and think that that's going to keep God happy...

...They're missing that the father (that God) just wants THEM. They are so busy trying to 'be right' they've actually stopped relating to God.

Both sons are lost. One because he is unrighteous, one because he's self-righteous. "He's run away. Dad owes me." He's focused on justice. But he's missed the gospel. I think Jesus here is really reshaping our vision of what it means to be lost, isn't He? I think he's saying, frighteningly, that sitting in church on a Sunday morning you may find people who are just as lost. If someone sits in church every Sunday, counting their years of faithful service, the sacrifices they've made for the gospel... "I've given money year-in, year-out," ... "I've kept this church alive." ... "God owes me!" **They're just lost!**

...Trying to relate to God by rules. Is there a danger, that this morning, maybe you're slipping into that older brother kind of state of mind? The frightening thing is that you're missing the gospel! And you're just as lost!

Can I plead with you to have a change of heart? **To share God's heartbeat for the lost.**

Actually, that's where the passage ends, doesn't it

In verse 31 and 32 the Father calls the older son to have a heart like him. He's it been out pleading him already in verse 28?

Verse 31 "My son," the father said, "you are always with me, and everything I have is yours." He's lost sight of his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hasn't he? That's how far-gone he is.

32 But we had to celebrate and be glad, because this brother of yours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The right thing to do, the just thing to do is celebrate.

We're getting a scan of the father's heart here. Notice he doesn't rejoice when people pull themselves up by their bootstraps and do good. He celebrates, he rejoices, when the dead come back to life. When they turn back to Him. And for those who have been found, if YOU say you've "been found" Jesus is saying "**God wants you to share his heartbeat, that irregular heartbeat for the lost.**"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첫째 아들과 같이 율법주의 적이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는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은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열심으로 노력하지만, 이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모두가 다 방황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명은 불의 하였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명은 자기 의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한명은 도망 갔고, 다른 한명은 정당함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놓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진실로 '방황함' 의미에 대해서 재 정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주 주일 오전에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이들 가운데, 이 아들과 같이 방황 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자신의 복음을 위한 섬김과 희생을 계산하면서, "**나는 해마다 교회에 헌금 하였고**" "**나 때문에 이 교회는 활기가 넘치며**" "**하나님은 나에게 빚졌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는 방황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규칙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려는 것...혹시 여러분도, 여기서 나오는 큰 형과 같이 생각함으로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복음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두려운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 형의 모습과 같이 방황하는 자입니다. 제가 당신의 마음이 바뀌길 간절히 바랍니다, 방황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도록. 실제로 오늘 본문이 위와 같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 절과 32 절 가운데,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불러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미 같은 내용을 이미 28 절에서 부탁했습니다. 31 절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고 할 때, 이는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놓치고 있었고, 그만큼 멀리 떨어져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32 절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은 즐거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스캔함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선을 행하려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죽은 자가 되돌아 올 때 기뻐하며 즐거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황을 멈추고 주 안에서) 발견된 자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함께 공휴 하시길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방황하는 자들을 향한 평범하지 않아 보이는 이 마음을*”

Notice that this parable, it's ends in kind of an open-ended way. We don't know what the older brother does here do we? we're left kind of on the edge of your seat! “What's he going to do!? How will it end!?”

In Luke's Gospel, the Pharisees, the older brother types, they stay true to form... and they remain lost. And from here on in, really it's the tax collectors and the sinners who keep turning back, time and time again, consistently. **The lost ones really are found.** How is it going to end? How is it going to end for you? You might identify in some way, shape or form with the younger son... running away. **Today's the day to turn back!!!!** Look at the reception you receive from God! Look at the way he welcomes you!

And again, if you'd say “Yes, I've been found!” ...please don't be like the older brother! I think you start to see why this matters for those of us who would say we've been found. God, as he sends his son, **You've got to read this parable with the two ones before it, in mind.**

The two parables about the sheep and the shepherd and the lady and the lost coin. God doesn't just stand there distantly waiting for people to come back. He actually starts a search and rescue mission, doesn't he? He sends his son into this world to seek and save that which is lost.

And the thing is, the mission is still going. Humanly speaking we're the way in which lost people hear the call to come home. Illustrate: Now I don't know here who's read Max Lucado's “No Wonder They Call Him Saviour” He tells the story about a girl, Christina, who grew up not far from Rio de Janeiro. And the bright lights and the parties, everything that Rio had to offer, was just too hard to resist. Her mother warned her, she said “Don't go there. There's no jobs. You'll end up working in a brother... or worse...”

우리가 오늘 비유에서 주목할 점은, 오늘 이야기는 열린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째 아들이 어떤 결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 아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첫째 형과 같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원래 모습과 같이 계속해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무사와 죄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임을 보게 되고, 방황하던 자들이 진실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당신을 위해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맺게 될까요? 여기서 나오는 작은 아들의 모습이 당신과 동일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도망가는 모습이...(그러나) 오늘이 바로 돌아설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로 받을 환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환영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나는 발견된 자야!” 라고 말한다면, 제발 이 맞 아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은 왜 이 일이 “발견된”자들에게 중요한 일인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이전에 등장하는 다른 두가지 비유를 반듯이 읽으셔야 합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 그리고 여인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사람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실로 탐색과 구조 미션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 방황하는 자를 찾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미션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자들에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과 같은 것입니다.

예화: 맥스 루카도라는 분이 쓴 “No Wonder They Call Him Saviour”라는 책에서, Rio de Janeiro 라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란 크리스티나 라는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Rio 라는 도시의 화려함과 파티 등 이 도시가 제공하는 여러 유혹을 견뎌내기 어려워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경고하기를, “그 도시에 가지 말아라, 거기에는 일도 없고, 끔찍한 곳에서 일하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She didn't heed her mother's advice. She packed her bags and RAN.

Her mother RAN after her! She went looking. She couldn't find her daughter, Christina. In her desperation she went to the sleaziest, nastiest joints in Rio and put up photos of herself around the walls of this place with a simple message on the back. One day Christina sort of stumbled down the stairwell of one of these places and saw a photo of her mother there and she noticed the handwriting on it and she turned it over and the message on the back said: "Whatever you've done, whatever you've become, please just come home." And she did.

That's what Jesus started. That's what He wants us to keep doing.

There's a sense in which, as we share God's heartbeat for the lost, **we're like Christ's photos pinned up around the world.** It's through us, through the Spirit speaking through us, as we talk to people about grace. Not just talk about it, we actually show it. We actually WELCOME people who are lost.

People hear the call to 'come home'.

So how's your heart beating this morning?

Do you share the irregular that God has? The heartbeat that loves the lost?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충고를 무시한 채, 가방을 싸고 도망쳤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뒤 따라 가서,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감 가운데 그녀는 그 도시의 가장 천박하고 불결한 장소로 가서, 짧은 문구와 함께 그녀의 사진을 끈끈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크리스티나가 계단에 주저 앉은 채, 그녀의 어머니가 짧은 문구와 함께 붙여놓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문구의 메시지는 “네가 무슨 짓을 했던, 네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제발 집으로 돌아오거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돌아 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방황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눔으로, 우리는 세상 곳곳에 붙여지는 그리스도의 사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들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보여주고, 방황하는 자들을 실로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오라’라는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향해 있나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러한 평범해 보이지 않는 마음을 공유 하고 계신가요? 방황하는 자들을 향한 그 마음을?